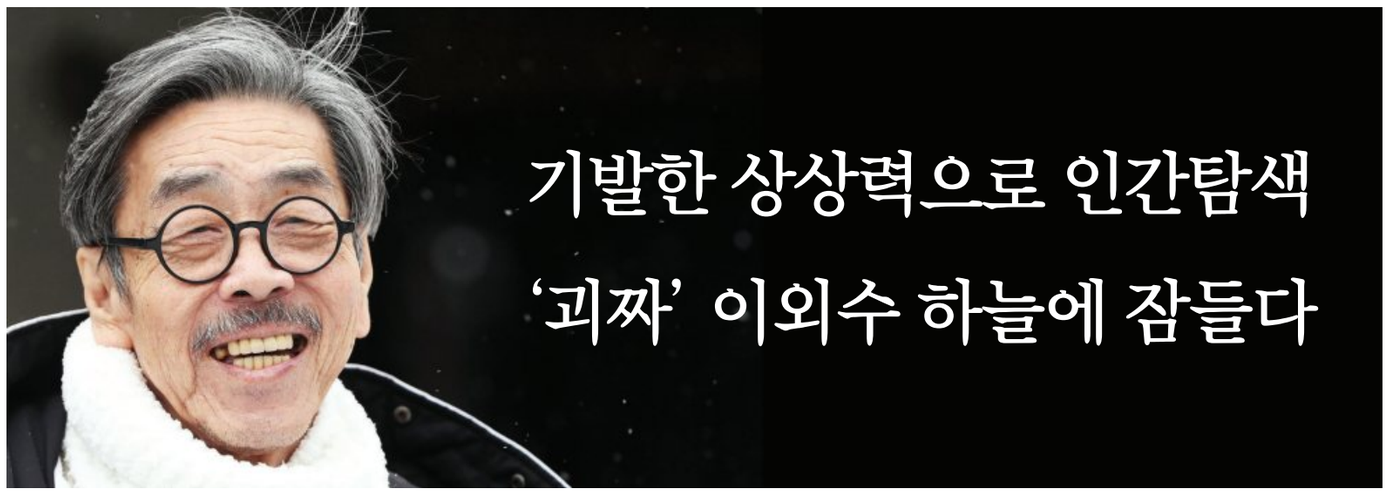

기발한 상상력으로 인간탐색 '괴짜' 이외수 하늘에 잠들다

폐렴으로 별세…'꿈꾸는 식물'·'들개'·'벽오금학도' 등 작품
SNS 170만명 팔로워…촌철살인 메시지 통해 대중들과 소통

지난 25일 폐렴으로 별세한 작가 이외수는 '괴짜', '기인'으로 불렸다.

고인은 50년 넘게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펼쳐왔다. 특히 미려한 문체와 감성, 기발한 상상력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구원을 탐색했다.

유족 측은 이외수 작가가 25일 오후 8시께 폐렴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14년 위암 2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그동안 재활에 집중해왔다.

194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강원도 인제군 본가에서 자랐다. 춘천에서 30여 년간 창작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2006년 이후에는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로 이주해, 투병 전까지 거주했다.

일반인과 독자들에게 '강원도 출신 작가'라고 알려진 데는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작가는 1965년 춘천교대에 입학했지만 1972년 중퇴했다. 같은 해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견습 어린이들'이 당선됐으며 이후 1975년 중편 '훈장'으로 '세대지'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창작의 길로 들어섰다.

첫 장편 '꿈꾸는 식물'을 비롯해 '들개', '벽오금학도', '황금비늘' 등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작품들이다.

'꿈꾸는 식물'은 가족의 몰락과 도덕의 상실로 방황하는 주인공을 통해 청년들의 인생을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출간 당시 70만 부가 판매된 '들개'는 제도권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려 화제를 모았다.

또한 '벽오금학도'는 출간 3개월 만에 120만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풍류도인 농월당 선생과 그의 손자인 강은백, 신통력을 지닌 노파 등의 인물을 매개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우화형식으로 형상화한 '황금비늘'은 작가가 오랫동안 심취했던 선도의 깨달음을 담은 구도 소설이다. "상상 속의 물고기를 통해 참 자유의 경지를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에서 그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생전에 작가는 지상파 예능, 시트콤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SNS에서 17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감없이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린 것은 그러한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통해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던 데서 연유한다. 대선 열기가 뜨겁던 지난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후보님, 힘 내십시오. 저도 힘 내겠습니다"고 지지를 보냈다.

어린 시절 그는 화가를 꿈꾸기도 했다. 춘천교대 시절 미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작가는 3년 전 졸혼(卒婚)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가 쓰러지자 부인이 달려와 병간호를 해왔다.

한편 고인의 장남인 이한얼씨는 SNS에 "밀린 잠을 청하듯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고 지금이라도 깨우면 일어나실 것 같은데 너무 곤히 잠드셔서 그러질 못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영서 시인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5·18문학상 본상 수상

"시집은 5월 광주를 겪은 이들의 삶이 투영된 것"

"제가 시를 썼다기보다 5월을 겪었던 그분들의 도움으로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은 그분들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어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 출신 고영서 시인이 2022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천년의 시작)이며 상금은 1000만원.

5·18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갖고 고영서시인의 작품집을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기성작가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추천위원 86인이 추천한 본상 후보작 13권을 심사했다.

고 시인은 전화 통화에서 "오월 민주여성회 윤청자 선생님,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차명숙 선생님, 5월어머니회 김옥희 어머님 등과 같은 분들의 삶을 통해 배운 게 많다"며 "시집의 많은 부분은 그분들처럼 광주 5월을 겪은 이들의 삶이 투영된 것"라고 말했다.

시인이 상정하는 5·18은 그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물론 시인이 직접 5·18을 겪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를 통해 광주의 5월을 현재 진행형으로 복원한다. 그 진행형은 누군가는 당시의 기억과 아픔, 상흔을 유의미한 결과로 풀어내야 한다는 나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

심사위원들은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은 5·18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에 지속되는 생의 체험으로서 의미화 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삶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고 시인이 작품을 통해 지향하는 방향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의식적인 행사나 구호도 좋지만 감동을 주는 다양한 작품으로 광주 5월의 정신을 구현했으면 한다"며 "광주에만 머물러 있는 5·18이 아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정신이 공유되고 교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인은 고모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 고모를 만나면서 시집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였다. 이야기인즉 "고모가 '네 시집을 보니까 5·18을 다시 겪은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아팠다. 당시 광주에서 살았는데 그때 상황은 말로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로 5·18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은 비단 고 시인만의 생각은 아니다. 작품집 해설을 쓴 노지영 평론가는 "오월의 기억이 누군가의 특권적인 정체성으로 소유되지 않도록 4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오월의 흔적들을 찾아나선다"며 "앞으로 우리가 기억과 함께 연결되어야 할 '미래 기억'에게 다가서서 기꺼이 그 '곁'이 되어준다"고 설명한다.

이번 시집에는 광주 5월뿐 아니라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묻고 살아가는 동포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있다. 시집 제목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은 사할린 동포에 관한 시다.

"4년 전엔가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들과 사할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민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여러 사정상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 시에 투영하자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한 미얀마를 상징하는 글도 있다. 고 시인은 "미얀마의 손가락 경례는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상기시킨다"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약자들에 대한 학살은 광주 5·18의 정신이 왜 전세계로 확장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5·18문학상 본상과 아울러 각 부문 신인상도 가려졌다. 김희철 '복화술사'와 '봄동'(시), 조성연 '우리는 우리조차 용서하지 못했으므로'(소설), 배영금(필명 배영글) '북치는 아이'(아동문학)이 각각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5월 28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60년 기억의 흔적…나만의 풍경'

최만길 개인전, 27일~5월2일까지 서울 G&J갤러리

최만길 갤러리 자리아트 대표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지만 조각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갤러리를 운영하면서는 좀처럼 작품 제작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수십년 만에 집중적으로 붓을 들었고 2020년 회화 작품으로 첫 전시를 열었었다.

최만길 작가 개인전이 27일부터 5월2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나만의 풍경'으로 150호 대작 등 38점이 나왔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선보였던 작품과 올해 새롭게 작업한 신작들을 함께 전시중이다. 이중 대작 위주의 작품들은 지난 3월 서울 화랑미술제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각가 시절부터 재료 탐구에 열성이었던 그는 회화 작업을 하면서도 재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고, 한지를 주재료 삼아 작품을 제작했다. 전시작들은 한지 위에 펼쳐진 색과 선의 다채로운 조합을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부조와 서양화 느낌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한지를 화폭에 붙이고 그 위에 다채로운 색감의 아크릴 물감을 발랐다. 자작나무 느낌이 나는 흰 선들은 화면에 리듬감을 부여하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

조각을 전공한 터라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돋보인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한지 등을 붙여 파내기도, 긁어내기도 하면서 조형성을 만들어간다. 전시작들에는 자연스럽게 60년 삶의 기록이 담겼다.

최 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6차례의 개인전 열었다.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 건축위원, 광주비엔날레 이사를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만의 풍경'

한국문예위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는 예술가들의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크라우드펀딩은 창작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 총 2개 부문이다. 먼저 '창작역량 강화' 부문은 창작활동을 위해 텀블벅에서 목표액 300만 원 이상의 펀딩을 추진하는 예술가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펀딩 목표액 일부(50만원~150만원)를 매칭해 지원한다.

'사회적가치 확산' 부문은 공익활동을 위해 카카오같이가치에서 목표액 300만 원 펀딩을 추진하는 예술단체가 신청 가능하다. 시드머니(종잣돈) 50만원과 카카오같이가치 이용자 댓글, 응원, SNS 공유 활동 1건당 200원을 산정해 지원한다.

별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펀딩을 추진할 경우 2개 부문 모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크라우드펀딩은 기초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예술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첫째 주 대표메일(artistree@arko.or.kr)을 통해 접수받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은암미술관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9월까지, 인문학강좌·전통회화·도예 등 행사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4월부터 2022년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심연(心緣), 마음 그리고 인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문학강좌, 전통회화, 도예, 차명상, 전통음악 등 5가지 분야 문화수업으로 구성됐다. 현대까지 계승되어온 문화의 5가지 분야에 대한 이론수업과 실습이 진행되며 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소비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는 오는 9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은암미술관 2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첫번째 강의는 30일 열린다. '문화는 인격의 날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철학자 성진기〈사진〉 전남대 명예교수가 문화란 무엇인가, 인간 조건으로서의 문화, 문화창조와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5월 28일에는 '잊혀진 호남화가를 찾아서'를 주제로 강의가 열리며 '흙에 마음을 담다'(7월2일), '끽다와 차명'(7월30일), '전통음악, 색으로 보고, 듣다'(9월3일) 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와 함께 신청가능하다. 참가비용은 무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5월20일까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2022 청년작가 전시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광주시 동구 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공모사업은 역량있는 신진청년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미술관의 취지에 따라 지역 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젊은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만 45세(1977년생) 이하의 광주에서 출생 또는 거주하고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년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의 시각예술분야 전시경력(학위청구전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포트폴리오와 공모신청서 등 필수제출서류를 첨부해야한다. 결과 발표일은 5월 27일 이다.

최종 선정된 작가에게는 드영미술관의 전시공간 제공 및 제반사항 지원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전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드영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5월 20일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